

“가까운 시일내 트럼프 만날 것” 北美 가교역 재가동 예고

文 대통령, 美 트럼프와 25분간 통화 ‘금강산 관광’ 등 첫 중재자 행보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간 브릿지 역할 재가동을 예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2월 27일~28일)을 가졌으나 빈손회담이란 충격을 국제사회에 줬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된 날 트럼프 대통령과 밤 6시50분부터 25분간 통화를 나눴다. 향후 북미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번째 만남 가능성

이 매우 높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당초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하노이회담 결렬 후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 미 미래에 만날 것’이란 부분을 놓고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

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통해 이러한 의구심은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 결렬 후 첫 번째 중재자 행보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댔을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경제사업으로 꼽힌다. 다만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현재 중단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발언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남북은 작년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한 후 “한반도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며 “하노이회담도 (북미 정상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였다”며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회담 관련 정치권 일각의 확대해석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하노이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와 책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비건-김혁철간 5일에 걸친 18시간 가량 실무회담이 있었고, 하노이 공동선언 초안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작금에 진행된 상황은 매우 당혹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다시 대화와 타결을 원하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정치권, 하노이회담 결렬 “실망은 금물” 목소리

文 “장시간 대화·상호이해 등 의미있는 진전” 유시민 “김 위원장, 담대한 도전 필요한 시점”

통하고 협력하여 양국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며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 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난 가운데, 실망하긴 이르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은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새벽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시민의 알릴레오’ 9화 특집방송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특집방송 때 하노이회담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열쇠(북미정상회담 주도권)를 쥐고 있는 ‘키맨’은 김 위원장”이라며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70년간 있었겠지만 김 위원장이 떨치고 나왔으면 한다.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 관련) 리스트를 다 제출한다고 해서 발가벗는 게 아님이 제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유 이사장과 함께 특집방송에 출연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은 빈손회담으로 귀결된 하노이회담 관련 “미래에 더 큰 합의를 만들 자양분을 만든 결렬”이라고 진단했다.

/우승준 기자

제2의 레이카비크회담 닮은꼴 될까 “하노이회담 결렬, 종전 토대 될 수도”

1986년 미국-소련 정상회담, ‘종전’ 큰역할



1987년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레이건 도서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 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레이카비크회담’이 떠오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소한 이름의 레이카비크회담과 하노이회담은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걸까.

우선 레이카비크회담은 ‘냉전 말기’ 때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86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북유럽국가인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말한다.

이 회담은 당시 결렬됐으나 이후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렬된 부분이 레이카비크회담과 하노이회담의 공통점인 셈이다.

케네스 아델만 전 유엔(국제연합)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일 미국 정치전문채널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실패한 하노이회담이 레이카비크회담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레이카비크에서 만나 ‘군비 축소’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모든 핵무기 제거’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미사일방어시스템 규제 포함’을 각각 주장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실패도 잠시, 두 정상은 1987년 워싱턴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 때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IRNF T)’에 합의한다. 조지 솔츠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

은 레이카비크회담이 IRNF T의 초석이 됐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노이회담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머리를 맞대 비핵화 관련 논의를 했으나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간 인식 차가 큰 게 원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로 돌아와 “영변 핵시설 해체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비핵화에는 순서가 있다. 영변 핵시설 해체 후 핵탄두 및 무기시스템 등이 남았다. 이 부분을 북한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하노이회담 후 북미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합의점을 찾는다면 ‘제2의 IRNF T’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승준 기자

교육부, ‘유치원 3법’ 도입 81% 찬성

» 1면 ‘보육대란 초읽기’서 계속

실제 개학 일정을 미루면 5일부터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서울의 경우도 606곳 중 47개 유치원만 당초 예정된 개학 일정을 연기하거나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은 그러나 자체조사 결과,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곳에 달한다면 교육부의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부가 집계한 것보다 8배 이상 많다. 실제 이들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다면 유치원생 보육 대란이 벌어진다.

한유총이 개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개학을 연기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한유총이 도입에 반발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해 교육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7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1.0%가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했고,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3.7%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하 소

조운해 前 고려병원 이사장께서
2019년 3월 1일 오후 2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 2019년 3월 6일 오전 8시 30분

영결식 2019년 3월 6일 오전 8시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삼성서울병원 영결식장

아들	조동혁	동만	동길	손자	현준	현승	성민	성진	나영
딸	자형			손녀	연주	희주	은정		
사위	권대규			외손자	주양	주정			
며느리	이정남	이미성	안영주	외손녀	권애영	권이주			
				손녀사위	김정현	이진상	이준석	박지영	한정록

호상 류목기

* 조화 및 조의금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연락처 02)3410-6917